

종합병원 간호사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이재영¹ · 주현옥²

¹동아대학교 간호학과 박사과정 · 부산대학교병원 간호사, ²동아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The Percep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on Hospital Nurses

Lee, Jae Young¹ · Ju, Hyeon Ok²

¹PhD Candidate, RN., Department of Nursing, Dong-A University, B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Busan; ²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descriptive study was to determine the perception of nurses on multicultural families. **Methods:** The study population consisted of 493 nurses from eight general hospitals in B city. Data collection was done from June 1 to July 31, 2012. The Perception for Multicultural Family Inventory developed by Jun and Kim (2010) was used as the study instrument.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d ANOVA using SPSS/WIN version 12.0. **Results:** Perception of nurs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was 3.64 points out of 5. Most of the nurses considered that multicultural education is necessary. However, there were only a small number of nurses received training on multiculturalism.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education and support on multiculturalism for nurses are needed to improve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for the multicultural families.

Key Words: Nurses, Family, Multiculturalism, Perception, Transcultural nursing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 사회에서 국제결혼은 2002년 5.0%에서 2005년 13.5%로 급증한 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전체 결혼 중 11.1% (252,276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 29,762건이 이루어졌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1). 다문화 가정이 증가됨과 더불어 다문화 가정구성원의 수도 급속히 늘고 있으나 이들은 소외되기 쉬운 계층으로, 주로 조선족(30.4%), 중국(27.3%), 베트남(19.5%) 순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나라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구소득이 월 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59.7%에 이를 정도로 경제 수준이 낮다(Korea Na-

tional Statistical Office, 2011).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이 차별 받는 이유로는 사회적 편견과 외모의 차이에서 오는 거부감이 가장 크며, 일상생활에서 언어장벽, 경제문제, 각종 차별, 자녀문제, 문화차이 등을 겪고 있다(Park, 2011).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를 위한 가족의 기능을 사회 안정화, 경제 질서 유지, 세대 간의 문화전달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겨진다(Yoo & Yoo, 2002).

다문화가정의 건강 및 보건의료는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주관적 건강수준이 나쁘고, 유병수준도 높게 나타났으며 치료포기 경험률도 증가하였다. 의료기관의 이용에서도 의사소통의 어려움(38.7%)과 의료비에 대한 부담(26.4%), 교통(5.4%)과 이용절차 복잡

주요어: 간호사,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정, 인식

*본 연구는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This study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s from Dong-A University.

Address reprint requests to: **Ju, Hyeon Ok**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Dong-A University, 32 Daesingongwon-ro, Seo-gu, Busan 602-714, Korea

Tel: +82-51-240-2689 Fax: +82-51-240-2920 E-mail: enfanju@dau.ac.kr

투고일: 2013년 3월 22일 심사완료일: 2013년 5월 29일 게재확정일: 2013년 5월 30일

(3.6%) 등을 호소하였으며, 최근 1년간 치료포기비율은 10.6%였다(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0).

한국은 이민국가가 아니라 민족국가이며, 인종적·문화적 동질성이 크고, 혈통적 민족주의가 강하다(Yoon, 2008). 이러한 자기민족 중심주의적인 성향은 간호사들의 문화적인 신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Brathwaite, 2005; Capell, Dean, & Veenstra, 2008; Chambers & Ryder, 2009), 간호사들의 경험과 문화적 신념은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Birch, Ruttan, Muth, & Baydala, 2009). 그리고 간호사는 일반인보다 한층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배척될 수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대상자의 차이점과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자신과는 다른 대상자의 요구와 문화적 규범 및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을 통해서 가능한 문화적 다양성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사람들이다(Chambers & Ryder, 2009).

현재 우리 사회의 간호대상자는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가진 집단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글로벌화 현상으로 간호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지식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간호학계를 비롯한 실무영역에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한 활동은 미흡하며(Chae, Park, Kang, & Lee, 2012), 건강한 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간호학분야에서는 타 분야에 비해 더욱 연구가 저조한 실정인(Young, 2009) 다문화 가정에 대한 다양한 간호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보건의료서비스제공 측면에서 간호학은 전국의 병원 및 학교를 비롯하여 인적자원이 준비된 영역이다. 향후 간호사들은 다문화 가정에게 건강관련 지원 사업을 해나가야 하고 이러한 보건의료사업에서 인적 자원이나 시설 면에서 주도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관련 연구도 다문화 가족의 특성, 정책, 사회응답 등 제한적으로 수행할 것이 아니라 가족부양, 가족기능, 건강 및 보건의료실태, 복지실태 및 욕구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Jung, 2009).

간호학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결혼이민자 여성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건강상태(Ahn, 2008; Yang, 2010), 출산 결과 비교(Kim, 2011), 임신과 출산 건강관리 실태(Jeong et al., 2009), 보건의료이용실태와 보건의료요구도(Kim, Park, & Kim, 2011; Koh & Koh, 2009) 등을 다루어 왔다. 그러나 대상자를 간호하는 간호사들이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기존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조사는 주로 일반 시민(Park, 2011)과 교사(Han, 2010; Jun & Kim, 2010; Lim & Park, 2011)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인에게 시행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을 간호사를 대상으로 파악한 연구도 거의 없으며 관련요인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문

화 가정의 건강한 삶의 질을 위한 연구와 실무에 앞서서 간호사가 간호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생각이나 정서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종합병원 간호사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간호사들이 편견 없이 다문화 가정을 받아들이고, 효과적인 간호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바탕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종합병원 간호사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다문화 가정을 위한 간호서비스 제공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및 다문화 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 둘째, 간호사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다.
- 셋째,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및 다문화 관련 특성에 따른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일 지역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B광역시 대한병원협회에 종합병원으로 등록된 24개의 종합병원 중,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8개의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편의 표집하였으며, 표본 크기는 G-Power 3.1.6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방법 ANOVA, 중간정도의 효과크기인 0.25, 유의수준 .05, 검정력 .80으로 계산했을 때 적정 표본크기가 304명으로 나와 탈락률 50%를 고려하여 설문지 600부를 배부하였고, 최종적으로 493부가 회수되어 탈락률은 17.8%였다.

3. 연구 도구

1) 일반적 특성 및 다문화 관련 특성

일반적 특성은 총 10문항으로 성별, 연령, 종교, 학력, 결혼여부, 경제상태, 현재 부서 근무기간, 총 근무기간, 직책, 근무부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문화 관련 특성은 다문화 교육 필요성 1문항, 다문화 경험 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문화 경험은 다문화 가정에 관련된 연구인 Choi (2011), Park (2011), Jun과 Kim (2010), Lim과 Park (2011)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

구자가 구성하였다. 다문화 경험은 사적 경험 4문항과 전문적 경험 3문항으로 나뉘는데, 사적 경험은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경험인 외국방문경험, 외국거주경험, 외국인친구, 외국인과 결혼한 친인척 등이고, 전문적 경험은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은 경험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어, 다문화 가족이나 자녀의 간호 경험, 다문화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Jun과 Kim (2010)이 교사를 대상으로 개발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를 간호사를 대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한 연구경험이 있는 간호학 교수 1인과 간호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임상 경력 7년 이상의 실무 간호사 1인에게 내용의 타당성을 확인받았다. 총 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점 척도이고 총점은 40 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설문문항은 다인종에 대한 인식과 존중, 다문화의 인정, 다문화에 대한 신념, 다문화가족에 대한 친밀감·소통·관심, 다문화 지식 수용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5$ 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76$ 이었다.

4. 자료수집 방법

P대학교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서 연구승인을 받은 후(E-

201205), 본 연구자가 직접 간호부의 연구담당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설문지는 각 병원의 연구담당자나 연구자가 수간호사에게 전달하였고, 수간호사가 연구대상자에게 배부하였다. 설문지에는 연구동의서를 포함하여 연구목적 및 내용이 기술되어 있었으며, 강제적이지 않고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음을 기록하였다.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약 10분 정도였으며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되었다. 배포한 설문지 600부 중 회수된 설문지는 498부였고, 이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 5개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93부를 본 연구의 자료로 분석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2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였다.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코드화한 후 SPSS for Window 1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다문화 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다문화 관련 특성에 따른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통계적 유의성은 $p < .05$ 에서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총 연구대상자 중 여자가 98.4%이었다. 연령은 20대가 59.3%로 가장 많았고, 평균은 29.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Nurses (N = 493)

Variables	Classification	n (%)	M (SD)
Gender	M	8 (1.6)	29.5 (6.78)
	F	485 (98.4)	
Age (yr)	21-29	292 (59.3)	
	30-39	150 (30.4)	
	Over 40	51 (10.3)	
Religion	Have	224 (45.4)	
	Don't have	269 (54.6)	
Education	Junior college (3 yr)	288 (58.4)	
	Bachelor's degree (4 yr)	182 (36.9)	
	Master's degree and over	23 (4.7)	
Marital status	Married	142 (28.8)	
	Single	351 (71.2)	
Economic status	Over middle	431 (87.4)	
	Low	62 (12.6)	
Working period (yr)	Under 5	260 (52.8)	6.6 (6.60)
	5-10	119 (24.1)	
	Above 10	114 (23.1)	
Working position	Staff nurse	417 (84.6)	
	Charge nurse and over	76 (15.4)	
Hospital type	Tertiary hospital	194 (39.4)	
	Secondary hospital	299 (60.6)	
Work unit	General ward	318 (64.5)	
	Intensive care unit	107 (21.7)	
	Emergency unit	68 (13.8)	

Table 2. Multiculturalism-related Characteristics of Nurses (N = 493)

Variables	Classification	n (%)
Needs for multi-cultural education	Yes	392 (79.5)
	No	101 (20.5)
Multicultural experience	Experience of visiting abroad	Yes 305 (61.9) No 188 (38.1)
	Experience of living abroad	Yes 52 (10.5) No 441 (89.5)
Foreign friend	Have	83 (16.8)
	None	410 (83.2)
Second foreign language	Yes	115 (23.3)
	No	378 (76.7)
Relatives who marry foreigner	Have	92 (18.7)
	None	401 (81.3)
Experience of nursing multicultural families	Yes	185 (37.5)
	No	308 (62.5)
Experience of multicultural education	Yes	61 (12.4)
	No	432 (87.6)

세였다. 총 근무경력은 5년 미만인 대상자가 52.8%이었고, 평균 6년 6개월이었다.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84.6%이고, 주임간호사 이상이 15.4%이었다. 60.6%가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39.4%가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근무부서는 64.5%가 일반 병동이었으며, 21.7%는 중환자실, 13.8%는 응급실이었다.

2. 대상자의 다문화 관련 특성

대상자의 다문화 관련 특성은 Table 2와 같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은 79.5%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대상자의 다문화 경험 중 외국 방문 경험이 있는 사람이 61.9%였다. 외국인 친구가 있는 사람은 16.8%, 의사소통 가능한 외국어가 있는 사람은 23.3%, 외국인과 결혼한 친인척이 있는 사람은 18.7%였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이나 자녀를 간호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37.5%, 다문화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12.4%였다.

3. 대상자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

연구대상자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은 Table 3과 같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은 5점 만점에 평점 3.64점(±0.49)이었다. 하위요인 별 점수를 살펴보면 '나와 다른 인종·민족일지라도 존중해주어야 한다'가 4.54점(±0.64)로 가장 높았고, '한국에도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살고 있다'가 3.85점(±0.83), '정부와 시민단체가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가 3.81점(±0.84), '나는 다른 문화에 대해 수용 및 존중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다'가 3.78점(±0.70), '한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사람들을 한국인으로 인정해야 한다'가 3.72점(±0.90), '나는 인종과 민족이 다른 사람들 간의 결혼을 찬성한다'가 3.63점(±0.83), '나는 기회가 된다면 다문화가정 사람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싶다'가 2.91점(±0.84), '나는 신문·TV 등에서 다루는 다문화가정 관련 기사를 관심있게 본다'가 2.88점(±0.85)의 순

Table 3. The Perception of Nurses for Multicultural Famillie (N = 493)

Subscales	M	SD
I respect on other race and ethnic group	4.54	0.64
Many kind of race and ethnic group are living in Korea	3.85	0.83
It is a desirable thing that government and civic group support multicultural famillies	3.81	0.84
I have an acceptance and respectful attitude for different culture	3.78	0.70
I regard multicultural famillies as a Korean	3.72	0.90
I agree with marriage between different race and ethnic group	3.63	0.83
I would like to have a regular meeting with multicultural famillies in case I get an opportunity	2.91	0.84
I have concern on the newspaper and TV about multicultural famillies	2.88	0.85
Total	3.64	0.49

이었다.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다문화 관련 특성에 따른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다문화 관련 특성에 따른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Tables 4, 5와 같다. 일반적 특성 중에서 직위(t = -2.34, p = .019)와 병원규모(t = -2.03, p = .043)에 따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직위가 일반간호사인 대상자보다, 주임간호사 이상인 간호사들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았다. 그리고 병원규모가 상급종합병원인 대상자가 종합병원인 대상자보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았다.

다문화 관련요인에서는 다문화 교육필요성(t = 4.74, p ≤ .001), 외국 방문경험(t = -3.08, p = .002), 다문화 가정이나 자녀를 간호한 경험(t = -3.06, p = .002)에 따라서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외국방문경험이 있는 경우, 다문화가정이나 자녀를 간호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었다.

논 의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간호사들의 인식 및 관련요인을

Table 4. The Perception of Nurses for Multicultural Famillie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 = 493)

Variables	Classification	M (SD)	t or F	p
Gender	M	3.55 (0.26)	-0.53	.594
	F	3.64 (0.49)		
Age (yr)	21-29	3.62 (0.47)	1.84	.160
	30-39	3.63 (0.55)		
	Over 40	3.76 (0.46)		
Religion	Have	3.66 (0.50)	0.81	.421
	Don't have	3.62 (0.48)		
Education	Junior college (3 yr)	3.60 (0.50)	2.12	.121
	Bachelor's degree (4 yr)	3.69 (0.46)		
	Master's degree and over	3.68 (0.66)		
Marital status	Married	3.67 (0.46)	0.84	.402
	Single	3.63 (0.50)		
Economic status	Over Middle	3.64 (0.47)	0.29	.776
	Low	3.62 (0.60)		
Working period (yr)	Under 5	3.60 (0.49)	1.84	.159
	5-10	3.66 (0.49)		
	Above 10	3.70 (0.50)		
Working position	Staff nurse	3.62 (0.49)	-2.34	.019
	Charge nurse and over	3.76 (0.47)		
Hospital type	Tertiary hospital	3.69 (0.49)	-2.03	.043
	Secondary hospital	3.60 (0.49)		
Work unit	General ward	3.63 (0.51)	0.73	.485
	Intensive care unit	3.69 (0.46)		
	Emergency unit	3.60 (0.44)		

Table 5. The Perception of Nurs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by Multiculturalism-related Characteristics (N = 493)

Variables	Classification	M (SD)	t	p	
Needs for Multi-cultural Education	Yes	3.69 (0.48)	4.74	<.001	
	No	3.44 (0.48)			
Multicultural Experience	Experience of visiting abroad	Yes	3.69 (0.50)	-3.08	.002
	No	3.55 (0.46)			
Experience of living abroad	Yes	3.56 (0.56)	1.30	.195	
	No	3.65 (0.48)			
Foreign friend	Have	3.65 (0.53)	-0.15	.885	
	None	3.63 (0.48)			
Second foreign language	Yes	3.65 (0.49)	-0.36	.722	
	No	3.64 (0.49)			
Relatives who marry foreigner	Have	3.65 (0.52)	-0.26	.798	
	None	3.64 (0.49)			
Experience of nursing multicultural families	Yes	3.73 (0.51)	-3.06	.002	
	No	3.59 (0.47)			
Experience of multicultural education	Yes	3.66 (0.59)	-0.29	.776	
	No	3.64 (0.48)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이를 통하여 다문화 가정을 위한 간호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 대상자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은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총점 3.64점으로 측정되었다. 동일한 도구로 교사를 대상으로 한 Jun과 Kim (2010)의 연구에서는 3.96점이었으며, 5점 척도인 다른 도구를 사용한 연구들에서는 교사는 4.04점(Han, 2010), 보육교사는 4.01점(Lim & Park, 2011)이었다. 따라서 간호사들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은 교사집단보다는 전반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정도의 차이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의 하위항목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문항은 '나와 다른 인종·민족 일지라도 존중해주어야 한다'가 4.54점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Jun과 Kim (2010)의 연구에서 4.77점으로 본 문항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동일한 결과이다. 다른 도구를 사용한 Im (2011)의 연구에서 가장 높은 문항은 '문화란 각 나라마다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이었으며,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간호사들이 간호학을 바탕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가장 낮은 인식을 보인 항목은 '나는 신문·TV 등에서 다루는 다문화 가정 관련 기사를 관심있게 본다'가 2.88점, '나는 기회가 된다면 다문화 가정 사람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싶다'가 2.91점이었다. Jun과 Kim (2010)의 연구에서도 각각 3.49점, 3.03점으로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낸 것과 동일한 결과이다. Im (2011)의 연구도 낮은 점수를 나타낸 문항은 '외국인에 대해 거부감 없이 대하는 편이다', '이주노동자·새터민·결혼이민자와 같은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외국인 과 결혼할 수 있다'이었다. 이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Park (2011)의 연구와 어느 정도 이해수준은 나타나고 있으나 깊이 있는 이해와 수용까지는 아직 부족하다는 기존의 연구(Han, 2010)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다인종의 존중과 다문화가정과의 소통에 대한 인식과 실천부분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을 나타낸다. 아직까지 그들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직접 소통하고 그것을 실천하는데 있어서는 소극적인 모습이 드러났다. 앞으로 간호사들에게 다문화에 대하여 단순히 존중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들과 소통하고 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다문화가정이나 자녀를 간호한 경험에서도 나타났는데, 이는 타인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들이 다문화가정을 접하고 나면 그들에 대한 인식이 향상됨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문화 가정을 접하지 못한 간호사들은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을 간호한 경험이 없는 간호사들에게 미리 관련 교육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문화 가정 관련 요인 중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간호사들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도 높았다. 게다가 전체 대상자 중 79.5%가 다문화나 다문화 가정에 관련된 교육이 간호사에게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타 연구에서도 다문화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Choi, 2011; Lim & Park, 2011)이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문화마다 표현하는 방법이나 성역할이 다르고 문화나 언어에 따른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으며(Lehti, Hammarström, & Mattsson, 2009), 자신이 가진 고정관념이나 편견으로 타인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 간호사는 전문직으로써 타인을 차별하지 않고 돌봄에 있어서 동등함과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Chambers & Ryder, 2009; Pacquiao, 2007), 간호사에게 다문화와 이에 관련된 교육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인식의 변화로까지 교육의 효과가 확대되기 어려우므로, 교육을 통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민족 문화에 대해 숙고하고 문화적 차이를 수용 및 존중하는 문화적 인식의 성장으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연속적이고 장기적인 교육과정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Choi, 2011).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150개의 간호대학 중 28개(18.7%)의 학교만이 다문화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Im, 2011). 이러한 수치는 학교차원의 교육이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앞으로 더 많은 간호대학에 다문화와 관련된 교과목을 간호학생들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문화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에 따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정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의 단지 12%만이 다문화 관련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나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되므로, 다문화 관련 교육을 시행한 후에 다시 반복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다문화에 관련한 교육은 단기적인 일회성 교육이 대부분인데(Im, 2011; Yun, 2011), 문화적 인식은 타문화에 대한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증진되므로 타문화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을 확대하는 것이 문화적 인식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Choi, 2011). 보건의료인에게 필요한 다문화 관련 교육내용으로는 언어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의사소통방법, 건강과 질병에 관한 문화적 차이와 이해, 문화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차이, 종교에 따른 질병과 치료에 대한 인식, 문화에 대한 개념과 이해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므로(Im, 2011) 다양한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에 있어서 개인, 가족, 기관, 지역사회 차원에서 문화의 다양성과 각각의 문화, 그리고 그 맥락을 존중하고 그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므로(Alegria, Atkins, Farmer, Slaton, & Stelk, 2010; Chrisman, 2007; Pacquiao, 2007),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자문과 도움을 통하여 간호사에게 적합하고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B 광역시에 위치한 종합병원 간호사만을 편의 표출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에 관한 인식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P광역시의 8개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493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간호사들이 편견 없이 효과적인 간호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간호사들이 다문화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은 12.4%에 불과하였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더욱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간호사들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은 3.64점으로 교사직군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 가정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본인이 직접 소통하고 그것을 실천하는데 있어서는 소극적이었다. 앞으로 간호사들에게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단순히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들과 소통하고 접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간호사의 79.5%가 다문화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다문화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간호사들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도 높았다. 앞으로 간호대학 차원에서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여 간호 대학생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교육이 단순한 일회성 교육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제언하는 바이다.

- 간호사들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하여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깨닫고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할 것을 제언한다.
- 다문화 가족을 간호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경험을 조사하여 간호 시 문제점을 파악해볼 것을 제언한다.

참고문헌

Ahn, Y. H. (2008). Health Status and Health Behavior of Immigrant Women Married to Koreans. *Journal of Korea Community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22(1), 18-26.

Alegria, M., Atkins, M., Farmer, E., Slaton, E., & Stelk, W. (2010). One size does not fit all: taking diversity, culture and context seriously. *Administration Policy Mental Health*, 37(1-2), 48-60.

Birch, J., Ruttan, L., Muth, T., & Baydala, L. (2009). Culturally Competent Care for Aboriginal Women: A Case for Culturally Competent Care for Aboriginal Women Giving Birth in Hospital Settings. *Journal of Aboriginal Health*, 4(2), 24-34.

Brathwaite, A. E. (2005). Evaluation of a cultural competence course. *Journal of Transcultural Nursing*, 16(4), 361-369.

Capell, J., Dean, E., & Veenstra, G.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competence and ethnocentrism of health care professionals. *Journal of Transcultural Nursing*, 19(2), 121-125.

Chae, D. H., Park, Y. H., Kang, K. H., & Lee, T. H. (2012).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Cultural Competency of General Hospital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8(1), 76-86.

Chambers, C., & Ryder, E. (2009). *Compassion and Caring in Nursing* (1st ed.). Oxon, United Kingdom: Radcliffe Publishing.

Choi, H. J. (2011). Exploratory study on experience in multicultural and cultural competence of service providers in multicultural settings. *Mental Health & Social Work*, 37, 405-439.

Chrisman, N. J. (2007). Extending cultural competence through systems

- change: academic, hospital, and community partnerships. *Journal of Transcultural Nursing*, 18(1 Suppl), 68S-85S.
- Greene, M. J. (2007). Strategies for incorporating cultural competence into childbirth education curriculum. *The Journal of Perinatal Education*, 16(2), 33-37.
- Han, H. R. (2010). *A study on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 of multicultural fami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Im, A. J. (2011). *Dental Hygienists' Multicultural Awareness and Actual Condition Survey of Edu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Yon-gin.
- Jeong, G. H., Koh, H. J., Kim, K. S., Kim, S. H., Kim, J. H., Park, H. S., et al. (2009). A Survey on Health Management of during Pregnancy, Childbirth, and the Postpartum of Immigrant Women in a Multi-cultural Famil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Womens Health Nursing*, 15(4), 261-269.
- Jun, M. K., & Kim, S. H. (2010). Homes Economics Teachers' Percep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Multicultural Educatio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2(3), 147-162.
- Jung, M. S. (2009).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healthcare-related multi-cultural policy in Korea from nursing's point of view.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6(1), 1-20.
- Kim, C. M., Park, M. S., & Kim, E. M. (2011). Married Immigrant Women's Utilization of Health Care and Needs of Health Servic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2(3), 333-341.
- Kim, M. J. (2011). A Comparative Study on Birth Outcomes between Korean Women and Immigrant Wo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Womens Health Nursing*, 17(4), 407-414.
- Koh, C. K., & Koh, S. K. (2009). Married Female Migrants' Experiences of Health Care Servic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5(1), 89-99.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0). *National Multicultural Family Survey*. Retrieved March, 18, 2010, <http://kosis.kr/metadata/>
-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1). *Marriage: Population movement study*. Retrieved December, 31, 2011, <http://kosis.kr>
- Lehti, A., Hammarström, A., & Mattsson, B. (2009). Recognition of depression in people of different cultures: a qualitative study. *BMC Family Practice*, 10(53), 1-9.
- Lim, M. S., & Park, J. Y. (2011). A Study on Daycare Teachers' Perceptions of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9(7), 25-37.
- Pacquiao, D.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competence education and increasing diversity in nursing schools and practice settings. *Journal of Transcultural Nursing*, 18(1 Suppl), 28S-37S.
- Park, S. M. (2011). *A study on the Recognition about multicultural families of the adul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chon University, Sunchon.
- Yang, S. J. (2010). Health Status, Health Care Utilization and Related Factors among Asian Immigrant Women in Korea. *Journal of Korea Community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24(2), 323-335.
- Yoo, G. S., & Yoo, Y. J. (2002). A Survey on the Family Concepts and Values among the Citizens of Seoul.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0(5), 79-94.
- Yoon, I. J. (2008). The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of Multiculturalism in South Korea-With a Focus on the Relationship of the State and Civil Society.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2(2), 72-103.
- Yun, T. Y. (2011). *A Study of the University Students' awareness on Multicultural Edu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Iksa.